

## 요약

### 서울시민 2021년 4/4분기 체감경기는 전 분기보다 올라 회복세 유지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4/4분기 95.3으로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하면서 3분기 연속 90선을 유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9.5로 전 분기 대비 0.3p 상승했고,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0.5p 오른 97.6으로 나타났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5.1로 전 분기 대비 2.5p 오르며 4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보다 1.4p 오른 89.2를 기록했다.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만 전 분기에 견줘 0.5p 하락했을 뿐 나머지 품목은 모두 상승했다.

###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는 최저점 이후 4개월째 상승

7월 최저점을 나타낸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BSI」는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1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67.7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준치(100)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9.6p 낮은 수준이다. 8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하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전망경기 BSI」는 12월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86.5를 나타냈다.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11월 「체감경기 BSI」는 67.4로 전월 대비 6.3p 오르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3p 낮았다.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12월 「전망경기 BSI」는 11월 89.9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이후 3.5p 하락하면서 86.5를 기록했다.

### 서울시민이 본 2022년 경제이슈 1위는 '생활물가' ... 2위는 '고용'

서울시민의 2021년 경제이슈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생활물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 기준으로 '생활물가'가 19.2%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작년과 비교하면 8.6%p 상승했다. 그다음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7.3%),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9.8%), '한국 대선 결과'(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경제이슈가 2021년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11개 경제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 모두가 기준치(100)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다수 시민은 경제이슈들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00점 만점에 9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55.7점으로 개선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전문가가 본 2022년 최대 경제이슈는 ‘고용문제’·‘소상공인문제’

전문가들이 2021년 주요 경제이슈 3개를 꼽았을 때 전체 이슈 중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43.3%)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41.8%)가 40%대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각각 8.0%p, 8.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코로나19 관련’(35.8%),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32.8%), ‘한국 대선 결과’(29.9%), ‘소득양극화’(19.4%),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와 서울시장 등 6월 지방선거’(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1개 경제이슈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대폭 개선이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103.0점), ‘주식시장’(101.5점), ‘청년실업 및 고용’(100.7점)은 기준치(100)를 웃도는 다소 조심스런 개선 전망을 보였다. 반면, ‘소득양극화’(51.5점), ‘생활물가’(56.0점),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56.7점) 등은 50점대로 개선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문가 중 44.8%는 2022년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도 38.8%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락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을 지목했고, 상승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 호전과 경기부양책 등을 꼽았다.

### 자치구별 산업 이슈 다양… 구상공회, 창구 이상 적극 역할 기대

2000년 초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 상공회를 설립하였고, 현재 서울에는 자치구별로 총 25개 구상공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민생현장 조사에서는 서울시 5개 권역별 구상공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충사항, 자치구별 산업계 현황, 서울시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전자 관련 도소매업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용산구상공회는 용산전자상가의 명성 되찾기와 이태원의 상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용산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용산 전자제조혁신 지원단지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용산정비창 개발 기대감도 높아짐에 따라 대규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큰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종로구는 강남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없어 직격탄을 맞았다고 했다. 임대료를 낮출 수 없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상공회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 운영과 회원사 간 교류 축소로 회원사 간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아쉬운 면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상공회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상공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이 증가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정부 지원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아쉽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봉제 등 영세한 제조업

중에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성동구상공회는 구상공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작구상공회는 공공 공간의 입주 자격을 강화하기보다 문턱을 낮춰 모든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랐다. 영등포상공회는 관내 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회원사 간 혜택 공유 및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관내 회원사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내년에 가장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상공회는 서초구내 인공지능(AI)센터 설립과 R&D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R&D 기업 및 유통 판매 기업이 증가 추세라고 하였다. 따라서 서초구 R&D 센터, AI 특화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속해서 지원하길 바랐고, 특히,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의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의 지원사업 등에 서울시와 협력을 원했다. 송파구는 지역의 특성상 도/소매, 서비스 업종이 많은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도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유지하는 업체들도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준완화, 판로확대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